HDI 인간개발연구원
HUMAN DEVELOPMENT INSTITUTE

2014
4 + 5 + 6

Better People Better World

좋은사람 좋은세상

CoverStory
권영걸 (주)한샘 사장

동서양의 가치를 융합한
'한샘스타일'로
한샘을 글로벌 디자인기업으로
도약시킬 것

발행인편지
HDI CEO세미나
최윤규의 카투노믹스
Issue&Seminar1
박원순 서울시장
Issue&Seminar2
이현재 호암재단 이사장
Issue&Seminar3
조정래 작가
MembershipDay
'찾아가는 CEO교실 12' 마이다스아이티 방문
회원&연구원소식
Special Focus
장만기 회장, 일본 'PHP비즈니스리뷰' 집중 보도
김동기칼럼
김동기 고려대 석좌교수

표지인물 권영걸 한샘 사장 사진 오경근 원장

등록번호 제122호(비매품) 등록번호 서울 마03200 발행일 2014년 4월 7일
발행인 장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2500(代) FAX 02.2203-1974
주소 135-948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826 중성빌딩 2층(www.hdi.or.kr)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산지직거래

산지 농협에서 수확된 신선한 농산물을
보다 더 저렴하게 배송 받는 산지직거래방식

알뜰바구니

따로따로 배송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소량 품목도 원하는 만큼 한번에 배송 받는 알뜰 바구니

행복꾸러미

전문가들이 엄선한 품목들을 저렴한 가격에
세트로 구입할 수 있는 행복꾸러미

2014년 6월 식자재몰 OPEN 예정

국민행복장터
농협 a market

남북통일을 생생하게 꿈꾸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전후해 모 회사의 J사장이 필자를 찾아왔다. 방문 전 전화로 일상을 넘어선 중요한 사안을 주고받은 내용을 자료로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이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50만 기업인 여러분, 자유대한민국 50만 기업인 여러분'이라는 제목이 붙은 자료였다.

"우리 민족은 1945년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었으나 1948년 남북이 분단되어 남한 땅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세워지고, 북한 땅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산 독재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반쪽짜리 광복만을 이룬 채로 남북이 갈등하다가 급기야 1950년 북의 남침으로 말미암아 동족간에 죽이고 파괴하는 엄청난 비극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1953년 가까스로 휴전이 성립된 이래 남북이 분단된 채로 서로 대립하면서 6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분단 당시 북한의 경제여건은 풍부한 지하자원과 전력 등 기간산업에서 남한보다 훨씬 월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놀라운 압축성장의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반대로 북한에서는 최악의 공산 독재정권의 사회주의 통제경제시스템으로 인하여 경제는 쇠락하고 북한 동포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서 기본적인 의식주까지도 해결치 못하는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같은 핏줄을 나눈 북한 동포들이 단지 북한 땅에 태어났거나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60년간 온갖 정치적 폭압 속에서 경제적으로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하면 차마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송구하고 민망할 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 동포들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중략)

"자유대한민국의 50만 기업인 여러분, 우리들은 남한 땅에서 그동안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었으니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 비해 국가와 민족 앞에 큰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큰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우리 50만 기업인들이 이 시대의 소명인 조국통일 건설의 초석을 세우는 일에 힘을 모아 봅시다. 각 기업마다 형편에 따라서 자유롭게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을 남북통일기금으로 적립해 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통일기금조성사업은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오직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감사와 애국 · 충성심의 발굴로 시작하며,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에게는 결코 억지로 지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크나큰 역사적 사명이요 은혜요 자랑스러운 권리가 될 것입니다. 통일기금 조성에 동참하는 우리 기업인들은 우리 사업에 이전보다 가일층 열성을 쏟아서 더 알차게 경영하고, 사원들에게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시킨다면 사원들의 사기도 한층 고양될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국민들로부터 기업인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하는 마음이 제고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인들이 빈곤을 극복하고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열사의 중동 땅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밤낮으로 일했고, 베트남 전쟁터에서도 목숨을 걸고 쉬지 않고 국력신강을 위하여 헌신했고, 외화획득을 위해서도 밤낮으로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우리 50만 기업인들이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하여 분발해 봅시다."(후략)

작금의 세계경제는 급변하고 있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 · 중 · 일 · 러 4강의 대립과 갈등상황은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을 해왔던 미국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미국의 힘을 믿고 한미동맹에 의존해온 한국의 국제외교와 통일전략은 한반도의 미래를 밝게만 볼 수 없게 만들고 있고,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한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점점 더 힘들어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 대다수의 통일의식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통일은 먼 훗날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8월 15일이면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남북이 분단된 지 70주년이 된다. 한국과 비슷한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2600여 년 전 유다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왕과 함께 잡혀갔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이 70년만이었다.

70년이란 시간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남북한의 70년 세월은 슬프고 괴롭고 수치스럽다. 분단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세계 열강들의 외교적 게임의 희생물이다. 그런데도 통일문제를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 4강 체제 하에서 풀어 보려고 하는 것은 외교정책을 주도하는 정부나 정치를 탓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의 대외 의타성과 깊이 잠들어 있는 통일의식을 일깨우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를 남긴다.

남한에서는 북의 독재, 북에서는 남의 외세의존 때문에 통일이 어렵다고 하지만 2010년 이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동북아의 정치, 경제, 군사 정세를 보면 남북이 시급하게 서로의 선입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서 진솔한 대화를 열어 찬란한 조국통일의 앞날을 내다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겨레는 남북이 함께 써보지 못한 기본자산이 있다.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더 큰 토지와 천연자원, 남한의 기술과 북한 인력 등이 그렇다. 이 자산을 활용해 남북경제공동체를 10년 정도 해나가면 남한의 국민소득 2만4천 달러, 북한의 600달러는 불변가치로 5만 달러가 되고, 남한의 GDP 1조 달러와 북한의 150억 달러도 시작년도와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고, 남한의 2~3% 경제성장률은 10%대로 올라갈 것이고, 북한의 1% 경제성장률도 남한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자연적으로 남한의 심각한 산업문제가 해결되고, 민생복지가 향상되고, 북한의 인민생활은 급격한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이룩할 꿈을 생생하게 양측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통일의식을 드높여가자. 남북통일을 생생하게 상상하고, 간절하게 바라며 기도해보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하자. 그러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다.

우리 기업인들과 CEO들은 국가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며 J사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남북통일의 대박'을 누리기 위하여 통일기금운동에 과감하게 투자하자. 씨를 뿌리는 농부들의 순수한 믿음을 갖고서 말이다.

4월 HDI CEO세미나

April

제1814회 HDI경영자연구회
위기의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4월 3일(목) 07:00~09:00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강사 : 신각수 前 주일대사
좌장 :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2015년이면 한일관계 정상화 50년을 맞는다. 지난 50년 동안 양국은 경제협력과 안보 공조 차원에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한일관계는 수십 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절대적이다.

일본의 아베 정권은 출범 이후 평화헌법의 폐기와 재무장을 공언하고,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고노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독도를 둘러싼 도발적인 발언들은 국제사회는 물론 한반도 주변 정세를 위협하기까지 한다.

4월 HDI경영자연구회에서는 직전 주일대사를 역임한 신각수 전 대사를 초빙하여 한일관계의 역사적 과정을 되짚어보고, 위기에 빠진 양국의 대립적 상황들을 풀어갈 혜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신각수 前 대사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서울대 법학 석 · 박사 | 제9회 외무고시 합격 | 駐이스라엘 대사, 駐일대사, 본부대사 | 외교부 제2차관, 제1차관 | 국립외교원 겸임교수 겸 국제법센터 소장 | 서울대 일본연구소 특임연구원

장달중 명예교수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美 UC버클리대 정치학 박사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학과장, 기획실장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제11회 CEO지혜산책
세종의 통치와 경영자의 혜안
4월 8일(화) 07:00~09:00
서울컨벤션 갤럭시홀(한국도심공항 3층)

강사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좌장 :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

경제, 경영 전문가인 신세돈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경제학 석 ·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은행 전문연구위원,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로 활동 중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참모로도 유명하다,

신세돈 교수가 집필한 <외천본민>이라는 책은 세종의 말을 집중조명하여 세종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을 심층 해석해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춘 세종의 리더십과 혜안을 이야기하며 리더의 역할과 방법론에 대해 설명한다.

4월 CEO지혜산책에서는 조선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던 세종의 시대에 세종이 펼친 통치의 성공비결과 기업경영 전략, 국제경제학 등을 기업에 접목해 성공하는 경영자의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신세돈 교수

美 UCLA 경제학과 졸업 | 美 UCLA 경제학 석 · 박사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 실장 | 한국은행 조사제1부 전문연구위원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이영선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美 메릴랜드주립대 경제학 박사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명예교수 | 한국경제학회 회장 | 한림대학교 총장 | 포스코 이사회 의장

제4회 CEO인문향연
왜 인문학인가?
4월 24일(목) 18:00~21:00
서울컨벤션 갤럭시홀(한국도심공항 3층)

강사 :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
좌장 : 윤영섭 학교법인 계원학원 이사장

인문(人文)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이다. 문(文)이란 원래 무늬란 뜻이다. 곧 인문학이란 '인간이 그리는 무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인문학은 고매한 이론이나 고급의 교양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이다. 최근 한국 사회의 인문학 열풍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도 대학 안팎의 연구자들이 아니라 기업인들이라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인문적 통찰은 우리 앞에 등장하는 사태나 사건을 인간이 그리는 무늬 위에다 올려놓고 볼 수 있는 능력이다.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봐야 하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4월 CEO인문향연에서는 최진석 서강대 교수를 모시고, 인문학의 중요성과 함께 인생을 살면서 자신만의 무늬를 그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갖는다.

최진석 교수

서강대 철학과 졸업 | 中 베이징대 도가철학 박사 | 미국 하버드대 옌칭연구소 방문학자 | 캐나다 토론토대 동아시아학과 방문교수

윤영섭 이사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 美 오하이오주립대 재무학 박사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고려대 대외부총장

※ 4월의 문화공연: 퓨전국악 'V-star'

5월 HDI CEO세미나

May

제1815회 HDI경영자연구회

나는 가정경영자다!

5월 8일(목) 07:00~09:00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강사 : 이수경 가정행복코칭센터 회장

좌장 : 오종남 서울대 주임교수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가정이,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공일까? 현대인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오로지 경제적 목적으로만 살아가며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잊고 지낸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친인척을 모셔두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너 없으면 못 살아'가 '너 때문에 못 살아!'로 바뀌고 있다. 지나고 보면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남편과 아내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처럼 다툰다.

5월 HDI경영자연구회는 가정의 달, '어버이 날'을 맞이하여 기업경영과 함께 지난 10년간 가정행복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가정행복코칭센터 이수경 회장을 초빙하여 부부와 가정이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가정 CEO가 되는 법을 알아본다.

이수경 회장

짚라인코리아(주) 부회장 | 행복한 아버지학교 회장 | 결혼예비학교, 부부학교 CEO, 가정행복대학 교수 | 매경닷컴 강소기업 최고경영자 과정 전임교수 | 웨딩뉴스 고정 칼럼니스트 | <저서>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오종남 교수

서울대 법학과 졸업 |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MU)대학원 졸업 | IMF 상임이사 |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 삼성증권 사외이사 | 서울대 과학기술혁신최고과정 주임교수 | <저서> 은퇴 후 30년을 준비하라, 한국인 당신의 미래 外

제12회 CEO지혜산책

이스라엘과 유태인의 지혜

5월 13일(화) 07:00~09:00

서울컨벤션 갤럭시홀(한국도심공항 3층)

강사 : 류태영 농촌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좌장 : 장태평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이스라엘 인구는 약 1천 7백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자 세계인구의 0.2%도 안 된다. 하지만 세계 억만장자의 40%,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 아이비리그 학생의 23%를 유태인이 차지하고 있다. 실로 대단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건국대 명예교수이자 농촌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류태영 이사장은 이스라엘 전문가로 이스라엘의 벤구리온대학교 초청교수로 활약하며 세계를 움직이는 인재들을 키워내는 이스라엘의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5월 CEO지혜산책에서는 류태영 이사장을 모시고, 유태인들이 세계일류의 인재를 어떻게 키워내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고, 인재육성의 지혜를 우리 기업인들이 어떻게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류태영 이사장

건국대 법학과 졸업 | 이스라엘 히브리대 사회학 박사 | 건국대 교수, 부총장, 명예교수 | 한국농촌사회학회 회장 | 한국이스라엘친선협회 상임부회장 | <상훈> 동탑산업훈장, 새마을훈장 노력장 | <저서> 외국의 새마을 운동, 이스라엘 농촌사회구조와 한국농촌사회라 外

장태평 이사장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 美 오레곤대 경제학 석사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한국벤처농업포럼 회장 | 한국마사회 회장 <저서> 강물은 바람따라 길을 바꾸지 않는다(서정시집), 농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外

제5회 CEO인문향연

영혼을 울리는 클래식

5월 22일(목) 18:00~21:00

서울컨벤션 일루미나홀(한국도심공항 4층)

강사 : 장일범 음악평론가

좌장 : 임충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고전음악이라고 하면 왠지 고상하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더군다나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앞만 바라보며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고전음악을 편하게 즐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닮아있는 고전음악의 세계와 지금까지 들어볼 수 없었던, 배울 수 없었던 고전음악과 고전음악가들의 흥미진진한 뒷이야기를 알게 된다면 고전음악과 우리와의 좁아진 거리만큼 우리의 삶의 지평은 더 넓어질 것이다.

5월 CEO인문향연에서는 코믹한 표정과 몸동작, 재미있는 유머,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고전음악의 세계를 대중에게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는 장일범 음악평론가를 모시고, 흥미로운 클래식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는다.

장일범 음악평론가

한국외대 러시아어과 졸업 |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음악원 성악과 수학 | 빈체로 예술감독 | 월간 '객석' 편집자문위원 동아일보 서평 전문위원 | KBS-1FM '장일범의 가정음악' MC | CBS-TV '음악의 발견' MC

임충식 회장

한국외대 독일어과 졸업 | 美 델라웨어대 정책학 석사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청장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장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청장 | 중소기업청 차장

※ 5월의 문화공연 : 첼리스트&피아니스트

June

제1816회 HDI경영자연구회

6.4지방선거 결과로 바라보는 대한민국 정치변동과 대선전망

6월 5일(목) 07:00~09:00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강사 : 김형준 명지대 교수
좌장 : 송인준 아시아투데이 회장

6.4 지방선거의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여야는 이번 지방선거를 박근혜 정부 2년차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신당 창당으로 여야 대결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광역단체장 선거이다.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당락에 따라 2017년 대선 구도를 전망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역 의원들의 출마가 눈에 띄게 많다는 점도 주목해봐야 한다.

6월 HDI경영자연구회에서는 6.4지방선거 다음 날을 맞아 김형준 명지대 교수를 초빙하여 전날 선거결과를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지방정부와 의회의 정치적 변동을 가늠해보는 동시에 2017년 대선구도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형준 교수

美 아이오와대 정치학 박사 | 한국정치학회 이사 | 한국선거학회 회장 |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 | <저서>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정치의 신장과 한계, 한국대선과 정치이념:유권자 정치이념 성향변화를 중심으로 外

송인준 회장

서울대 졸업 |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 대검찰청 강력부장 | 창원지검, 대구고검 검사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무법인 유한에이펙스 고문변호사 | <저서> 산문집-달리기구조사회 이것이 문제다, 겨울숲 봄빛 통로 外

제13회 CEO지혜산책

꿈이 있는 기업, 한국암웨이의 성공신화

6월 10일(화) 07:00~09:00
서울컨벤션 갤럭시홀(한국도심공항 3층)

강사 : 박세준 한국암웨이 사장
좌장 : 이채욱 CJ대한통운 부회장

내수침체와 노사문제 등으로 국내기업들이 어려움을 격고 있다. 반면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법인인 한국암웨이는 네트워킹 판매업체 중 가장 선진적인 마케팅시스템을 도입해 지속적인 매출 성공가도를 달리며 하루하루 새로운 신화를 써가고 있다.

그렇다면 네트워킹 판매기업의 신화를 써낸 비결은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해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이 철학이자 기업 비전이라는 박세준 대표. 6월 CEO지혜산책에서는 한국암웨이가 그동안 어떻게 기업을 성장시켜왔으며 어떻게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회사를 이끌고 있는 박세준 사장을 모시고, 그의 경영철학과 한국암웨이의 기업이념, 그리고 기업의 성공DNA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박세준 사장

경북대 교육학과 졸업 | 경북대 상담심리학 석사 | 아멕스카드, 체이스맨하탄은행 근무 | 한국암웨이 인사담당 이사, 부사장 | 한국직접판매협회 회장

이채욱 부회장

삼성GE 의료기기 대표이사 | GE아시아태평양지역 사장 | GE아시아지역 총괄사장 | GE코리아 사장, 회장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제6회 CEO인문향연

서양고전, 인간을 말하다

6월 26일(목) 18:00~21:00
서울컨벤션 갤럭시홀(한국도심공항 3층)

강사 : 이진우 포스텍 석좌교수
좌장 : 손욱 서울대 교수

마키아벨리는 정치행위가 윤리적 가치나 종교적 규율로부터 결별해야 한다며 반기를 들고 나왔다. 그의 대표작 <군주론>은 냉혹한 현실에 바탕을 둔 정치를 역설하며 근대 정치학의 문을 연 역작으로 꼽힌다. 마키아벨리는 이상적인 군주는 착하고 어진 군주가 아니라 때로는 냉혹하고, 필요하다면 군주 스스로 약속을 어기기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의 3가지 덕목으로 역량, 행운, 시대적 요구를 꼽았다. 인간의 심성, 군중심리의 본질, 조직의 성격, 리더십, 통치기술 등에 걸쳐 핵심을 뚫는 마키아벨리의 통찰력은 비범하다.

6월 CEO인문향연에서는 이진우 포스텍 석좌교수를 초빙해 마키아벨리의 권력현실과 이성발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진우 교수

연세대 독어독문학과 졸업 |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 철학 석 · 박사 | 계명대 총장 | 한국니체학회 회장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손욱 교수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 | 삼성종합기술원 원장 | 삼성SDI 사장 | 포스코 이사회 의장 | (주)농심 회장

※ 공연: 스윙&스탭스

"우리가 향후 5년간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면
우리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정리 정지환 본원 편집위원 / 감사나눔연구소 소장 lowsaejae@gamsa.or.kr

1월 9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신년하례회 겸 제1811회 HDI경영자연구회

서울은 지속가능한 내일에 투자합니다

박원순 서울시 시장

"많은 사람이 내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당신은 어떤 시장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답해 왔다. '나는 아무 것도 기억되지 않는 시장으로 남고 싶다.' 자칫 점수를 잃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역설적 답변을 고집해온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동안 시정을 맡았던 역대 시장들은 너무 큰 것만 하려고 시도하다가 정작 꼭 해야 할 너무 많은 것들을 놓쳤다고 본다. 물론 임기 중에 집중해야 할 사업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이 글로벌 최고 도시가 되려면 이제 '부분'을 넘어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방식의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 따라서 특정 분야에 '올인' 하거나 '개발'에 목을 매는 방식은 더 이상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박원순 시장은 '소셜 디자이너' 출신답게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는 안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일본의 모리재단이 실시한 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서울은 2년 연속 6위에 올랐다. 5위 싱가포르와의 격차도 상당히 줄였다. 서울이 글로벌 TOP5가 되려면 '한 과목 잘하기'가 아닌 '전 과목 잘하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박 시장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우선 시장으로 취임하자마자 현안으로 떠오른 지하철 9호선 문제는 새로 계약을 맺어 서울시가 요금 결정권을 갖도록 했다. 난항을 겪었던 새빛둥둥섬 문제도 당사자간 합의를 도출해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약 20조원에 이르던 서울시 채무를 지난 2년 동안 16조 원으로 줄이는 데도 성공했다. 올해 연말이면 6조 5천억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월에 오픈하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도 사실은 문제가 많았다. 취임 직후 보고를 받아보니 매년 200억의 혈세가 들어가는 구조였는데, 서울시 산하의 디자인재단이 많은 논의 끝에 디자인과 패션 관련 기업과 상점 등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2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

보육반장, 공공건축가,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현안을 정리하는 '문제 해결사'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이었다. 1천만 명이 한 곳에 모여 살다 보니 서울에는 갈등이 수없이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약 1천개에 이르는 뉴타운 지정 지역은 주민들이 거의 모두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싸우는 등 난장판에 가까웠다.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원칙과 방도가 있어야 했다.

"지속적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조정하지 못할 갈등은 없다. 예컨대 지하철 파업도 결국은 신뢰의 문제였다. 노동조합이 지나친 요구를 하면 시장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원칙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만 강조하면 타협 역시 불가능하다. 평소 대화의 통로를 마련해 놓으니 위기의 순간에 효력이 발휘되며 파업 없이 갈등이 해결됐다. 아파트 재건축 문제도 갈등이 심각하다. 주변 녹지와의 조화,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성을 고려하는 서울시와 아무래도 집값과 수익성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은 이해가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잠실5단지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전운이 감돌 정도로 이해가 상충했지만 '공공건축가'라는 제도를 도입해 해결했다."

공공건축가의 합리적인 입장에서 이미 고층화가 허용된 롯데월드 방면은 주민들의 고층화 요구를 수용했다. 하지만 한강이나 잠실대교 방면은 스카이라인을 살리기 위해서 고층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에 이곳에 '천개의 마당'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원을 조성했다. 이곳에선 벼룩시장과 지역축제가 열리고, 아이들과 주민들이 뛰어놀게 될 것이다.

"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삶의 질과 창조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쉼'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MBC 인기 프로그램 '기적의 도서관'을 만든 사람은 김영희 PD였는데, 그가 1년 동안 안식년을 얻어 영국에 갔던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등 내가 활동했던 비영리 단체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지켰던 것이 하나 있다. 실무자가 3년 근무하면 3개월의 안식월을, 7년 근무하면 1년의 안식년을 준 것이 그것이다. 휴식하고 돌아온 사람의 얼굴은 놀랍게도 확 바뀐다. 한국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은 가장 길지만 노동생산성은 가장 떨어진다. 그래서 서울시에 '스마트워크위원회'를 만들었다."

박 시장의 야심작인 스마트워크위원회에는 현재 10명의 직원이 있다고 한다. 다양한 부서에서 차출된 이들은 일상 업무 대신에 특이한 일을 한다. 예컨대 소통과 혁신 능력이 뛰어난 기업을 방문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서울시에 적용한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야근을 못하게 하고 시청사 사무실 전등을 일제히 꺼버리는 것도 기업 벤치마킹의 산물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는 결코 낭비가 아니다. 도리어 복지는 새로운 투자라는 분명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실제로 복지 분야에선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된다. 예컨대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가 추진되면서 서울시 모든 학교에 조리원이라는 일자리가 생겨났다.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인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일본 요코하마의 여시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해당 지역의 보육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조사해 주부들에게 알려주고 주민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보육반장을 임명했더니 보육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래서 당장 이 제도를 서울시에 도입했더니 400여 명의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밖에도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빅데이터큐레이터 등을 양성하고 있다."

서울시장 50년 전에 못된 것이 아쉬운 이유

서울의 미래 먹거리는 무엇일까? 서울시가 맥킨지 컨설팅을 받자 '관광'과 '컨벤션'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지난해 '서울시는 글로벌 TOP5 관광도시, 글로벌 TOP3 컨벤션도시로 간다'라고 선언했다. 서울의 현재 성적은 관광 11위, 컨벤션 5위라고 한다(참고로 관광 1위는 태국 방콕, 컨벤션 1위는 싱가포르). 물론 해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는 없다.

"나는 서울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미 있는 것을 잘 보면 도리어 거기에 해법의 열쇠가 있을 것이다. 구로, 금천 G밸리에 가보면 이미 IT, 패션을 중심으로 1만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다. 나는 이것을 잘 살리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지원하자 이곳에서만 7000명 정도의 고용이 이뤄졌다. 성수동에는 수제화 골목이 있는데, 성수역에서 내리면 곧바로 구두박물관과 공동구판장에 접근할 수 있다. 성수동으로 젊은 수제화 디자이너가 몰려들기 시작한 배경이다. 올해에는 2단계로 피혁업체 골목을 지원할 계획이다. 종로3가의 보석상가, 동대문의 약령시, 필동의 인쇄골목, 장안평의 중고차매매시장도 잘 키워야 한다."

그래서 박 시장이 서울시 공무원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멀리 가지 마라. 하늘을 쳐다보지 마라. 발밑을 봐라. 서울은 600년 조선의 수도였고, 500년 초기 백제의 수도였다. 여기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궤적이 여기 녹아 있다. 그것만 잘 활용해도 서울을 세계적 도시로 만들 수 있다' 뉴욕과 런던을 닮기보다 서울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다.

"서울의 랜드마크는 다름 아닌 '자연'과 '역사'다. 세계 어느 나라 수도가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가? 서울을 말하면서 한강과 수많은 지천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북한산 둘레길에 이어서 서울 외곽 전체를 연결하는 서울 둘레길이 올해 연말에 완공된다. 한양 도성을 걸어본 사람은 서울이 얼마나 유서 깊고 멋진 도시인지 알 것이다. 서울에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할 것들이 널려 있다. 그래서 이를 전담할 과(課)를 하나 신설하고 박물관과 연구소도 만들었다. 이미 문화유산 예비잠정목록에 등재된 성과가 나왔고, 내년이나 후년에 정식등재의 낭보가 들려올 것이다. 사실 서울의 자연과 역사 자체가 문화유산이건만 아쉽게도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버려왔다. 50년, 100년 전에 서울시장이 못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 ■

정리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2월 6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창립39주년 기념 제1812회 HDI경영자연구회

한국의 인력성장과 인간개발

이현재 호암재단 이사장

인간개발연구원이 설립된 1975년은 우리나라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세운 3차 년도에 해당하던 때로 한창 개발연대의 꽃을 피우던 시기였다. 이러한 특수한 시점에 미래를 전망하면서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원이 설립됐던 것이다.

연구원이 우리사회의 여러 차례 정변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39년의 긴 역사를 이어오면서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 갈 인간개발의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유사기구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희귀한 사례이다. 결국 연구원은 그동안 직능과 전문성을 달리하는 우리 사회의 지도적 인사들이 서로 새롭고 다른 지식을 교환하고 공유하며 사회적으로 두터운 지식대, 즉 지식의 끈을 형성해 온 셈이다.

시대별 이념에 따른 인재형의 변화상

오늘의 주제가 "한국의 인력성장과 인간개발"이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성격 내지 유형의 인재 또는 인력으로 성장해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경제 또는 사회발전의 이념형을 살펴보고, 그 이념형 밑에서 어떠한 인재형이 존재했고, 발전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해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각 사회의 이념형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그 사회를 주도하는 인재형도 다르게 만들기 마련이다. 즉 이상주의적 사회에는 이상주의적 인재형, 현실주의적 사회에는 현실주의적 인재형이 형성되게 마련이다.

공맹의 윤리를 신봉했던 조선조시대에는 자연적으로 이상주의적 인재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 유교의 이상주의에 압도되어 다산이나 추사와 같은 실학주의자들의 교육을 받는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은 성숙할 수가 없었다. 당시 최고학부였던 성균관의 유생들은 모두가 공맹의 이상주의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현실감각이 탁월했던 정암 조광조가 유학자이면서도 이상론에 몰입해 자신들이 국가경영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대는 성균관 유생들을 보다 못해 논시비는 가하지만 정시비는 불가하다고 나무랐다는 말이 전해져 오는 것도, 당시 사회적 풍토나 학자들이 얼마나 이상주의적 경향에 젖어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준다. 따라서 조선조시대에 현실주의적 인재가 육성될 여지가 거의 없었으며 서양열강에서 볼 수 있는 국가나 사회발전을 이룩될 수 없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일제강점기에는 더구나 한국민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발전이념이란 있을 수 없었고, 따라서 독자적 인재형 형성이 어려웠다. 당시는 불가불 일본의 교육제도에 따른 피동적 교육과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입장에 따른 중등 및 고등교육의 선택적 취학이 있었을 따름이다. 이들에게는 초중등학교 교사나 공무원 취업이 최고의 직업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산업부문은 소수의 민족자본기업이나 총독부공기업에의 좁은 진로가 있었을 따름이다. 인재형으로 보면 현실적응형과 제한된 출세주의형이었다고 규정할 수 있다.

해방직후의 소위 해방공간에는 해방의 감동 속에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마치 프랑스 혁명기와도 흡사한 이념적이고 이상적인 관념의 논쟁과 투쟁이 지속되면서 혼돈된 정치적 이상주의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남북 양쪽에 단독정부가 수립되었으나 곧바로 전쟁상태가 이어졌다. 해방공간과 그에 이은 전쟁기간의 국가사회 운영에는 일제시대에 중등 내지 고등교육을 받았던 인력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그 핵심이 일제시대의 공무원 출신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친일파 정리의 미흡이라는 관점에서 논란도 있었으나, 당시 달리 기성 인재 축적층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고육지책이나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전통적 신분관계 해체와 교육의 확대 보급에 따른 이념의 변화

굳이 이념형적으로 규정짓는다면 해방 후 본격적인 현실주의적 이념에 의해서 국가 및 사회 운영이 시작된 것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개시된 시기부터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당시 각 부문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인문사회분야에서도 실용적 학과와 자연과학분야, 특히 공학관련 학과 등의 교원, 학생의 증원 및 증과, 교육시설의 확충 등이 급격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해방 후 현재에 이르도록 우리의 근대화를 이룩하는 결정적 두 가지 큰 요인이 있다. 그 하나는 조선조시대부터 면면히 이어져 온 전통적 신분관계의 소멸, 즉 재래 계층구조의 붕괴다. 아직도 구미 각국이나 일본정부 등 여러 나라나 민족도 이루지 못한 엄청난 역사적 과업을 이룩한 것이다.

그 요인으로는 무엇보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지녀온 계층관계에 대한 불만과 울분이 8.15해방이라는 큰 충동적 계기를 맞아 그 붕괴과정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미군주둔과 군정시행을 비롯해서 이루어진 외래문화의 급격한 유입, 교육의 보급, 징병제에 의한 군복무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문화적 동화, 종교의 자유화 등 수많은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전통적 신분관계의 해체와 아울러 우리 근대화에 다른 하나의 큰 요인은 교육의 수평적 수직적 확대 보급에 의한 교육의 질적 양적으로의 괄목할 향상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근대화는 전통적 계층관계의 붕괴와 교육의 보급이 이룩한 소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의해서 발전의 기반이 되는 현실주의적 이념이 뿌리내리게 된 것이다.

교육문제와 관련해 주목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한 대일쇄국정책을 견지했었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익숙한 일본으로 유학을 가지 않고 대부분 미국행을 택했다. 이들이 수학을 마치고 귀국해 각계에서 혁신적 기풍을 조성함으로써 일본을 뛰어넘는 한국근대화와 국제화의 주요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들은 주로 실용주의의 토양이 짙은 미국의 현실주의적 교육을 받고 돌아왔다. 때문에 현실주의적 이념 밑에 발전과 근대화를 모색하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인재형이었으며, 한국사회의 발전지향과 적절한 접목이 이루어진 셈이다.

직업정신과 시민정신 투철한 인재 필요한 시대

우리는 결국 개발연대 이래로 현실주의적 이념형 위에서 효율주의를 담당하며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밖에 없었다. 현대를 경제의 시대라고 할 만큼 경제문제가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경제를 넘어선 문제, 즉 정치 · 사회 · 문화 등 각 부문의 균형적 발전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인간생활에서는 경제원리, 전형적으로는 비용-편익(Cost-Benefit) 원리적 경향과 이것을 넘어서 인간성을 깔고 생각하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 인간성을 깔고 비용-편익 원리를 넘어선 인간생활이란 구체적으로는 투철한 시민정신을 들어야 할 것이다.

시민정신은 한마디로 공자의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이거나 도산 안창호 선생의 '자신을 사랑하며 남도 사랑한다(愛己愛他)'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최소한의 개인적 희생의 제공에 의해 최대의 집단생산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생활에서는 자신을 규율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타율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는 법률 · 제도와 같은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규율하는 측면으로 전형적으로는 시민정신이 있다. 자율적 규제가 많은 사회에는 타율적 규제가 그만큼 적어도 문제가 없다.

앨빈 토플러는 현대사회에서는 문화, 그리고 시민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재해석이 필요하게 된다는 말을 했는데, 시민정신이 투철한 사회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이 적을 수도 있다.

시민사회와 맞먹는 다른 측면인 기업사회와 관련해서는 투철한 기업가정신과 직업정신을 들 수 있다. 자기직능에 사명감을 깃들인 정진이 바로 이것이다. 현실주의적 사회 및 경제 발전원리에 투철한 시민정신, 공동체의식, 직업의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하게 된다면 효율성과 인간성이 균형적으로 확보될 것이다.

정리 : 한승현 인턴 solomio87@gmail.com
1월 23일(목) 서울컨벤션 갤럭시홀(한국도심공항 3층)

제1회 CEO인문향연

조정래의 정글만리 – 절대 알 수 없는 중국의 진실

조정래 작가

문화, 예술, 인문학을 통해 리더의 품격과 인생의 가치를 만드는 행복한 경영'을 모토로 CEO의 문화경영의 場을 표방하는 "CEO인문향연"이 지난 1월 23일 그랜드 오픈했다. 조정래 작가의 "조정래의 정글만리 – 절대 알 수 없는 중국의 진실"을 주제로 열린 개강강연에는 1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루었다.

CEO인문향연은 문화 · 인문 분야 최고 석학들로 구성된 강사진, 문화 · 인문 분야 거장들과의 깊은 교감과 밀도있는 네트워크 형성, 행복한 인생과 행복한 기업을 이끌어갈 영성경영 프로그램, 체험학습을 도입한 문화 · 예술 융합형 강의 콘서트를 표방하고 있으며, 경영철학을 완성하는 인문학 세미나와 함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경영자간 소통의 場을 펼쳐갈 예정이다. 개강강연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무대는 크라운해태제과(회장 윤영달)의 후원으로 '락음국악단'이 아름다운 우리 가락의 선율과 소리를 들려줘 무대의 품격을 더하는 시간이 되었다.

-편집자 주

요즘 대학에서 영어, 철학, 역사학 심지어 일부 대학에서는 국문학과도 없앴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난 40년간 산업화를 겪으면서 돈을 버는 데에만 혈안이 된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아닌가 생각된다. 맹목적인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2만6천불 시대를 맞았지만 왜 사는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자각이 부족했다. 인문학이란 문학의 총제적인 연구이자 인간에 대한 발견이다. 인간의 존엄과 상호 존재하는 의미와 바람직한 삶의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인문학 열풍, 바람직한 현상

그런 점에서 최근 한국에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대한민국헌법은 기업에게 이윤창출의 권리를 주었다. 이윤창출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존중받아야지만 그 또한 극대화 될 수 있다. 230가지의 발명품을 만든 에디슨과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발명의 원동력은 과학적 지식이 아닌 인문학적 상상력이었다. 인문학적 상상력은 책을 통해 넓힐 수 있다. 우리는 술, TV에 현혹되어 책을 등한시 하는데 이런 습관을 바꿔야 한다. 하루에 5분씩만 책을 읽고 70까지 산다고 한다면 약 2000권의 책을 읽을 수 있다. 그 정도의 양이면 모든 분야의 책을 완벽히 읽을 수 있다.

CEO로서 돈만 벌라고 하지 말고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사원들이 무리한 명령에라도 저항할 수 있을까? CEO의 평균나이가 50인데, 하루에 책을 조금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주일에 책을 읽는 시간은 고작 7~8분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은 삭막한 삶이 가득 찬 사회로 갈수 있다는 증거이다.

1980년부터 중국 왕래하며 쓴 <정글만리>

<정글만리>를 읽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고 강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소설은 대개 제목이 그 소설의 절반을 규정한다고 한다. 나머지 절반이 첫줄에서, 남은 절반이 마지막 부분에 담겨있다고 한다. 복합명사인 '정글만리'는 인간사회를 정글로, 만리장성의 '만리'를 가져와 만든 단어다.

<정글만리>는 1980년부터 열여섯 차례 중국을 왕래하면서 완성한 책이다. 80년대 중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당시 중국 인구는 이미 10억 명을 넘어섰다. 그때 엄청난 경제의 규모를 달성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것에 놀랐다면 1990년 아리랑을 쓰기 위해 다시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급변하는 경제크기

를 보고 놀랐다.

당시 중국은 천안문사태가 벌어진 후라 입국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중국방문이 <아리랑> 집필을 위해 필요했기 때문에 비즈니스 비자까지 받아서 입국을 강행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방문한 중국 만주에서 오랜 궁금증이었던 '소련이 무너진 상황에서 중국은 왜 여전히 건재한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중국인들은 이미 먹는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었다. 상점마다 가득 진열된 상품들은 국민들에 의해 소비되고 있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지고 있었다. 반면 소련은 가난과의 전쟁에서 너무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으면서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태였다. 물적 토대의 유무가 한 국가의 존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었다.

급성장하는 중국과 화합하는 길 모색하고파

5만개나 되는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나가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오해 없이 객관적으로 소설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소설을 쓰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 자료란 자료는 모두 스크랩해가면서 공부했다. 또한 객관적인 해석을 위해 세계 석학들이 보는 중국, 우리나라 학자들이 바라보는 중국을 탐독하기도 했다.

지금 중국은 한국 무역의 25%를 차지하며 총량으로써 무역국 1위로 올라섰다.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들의 힘에 비해 그에 대한 한국의 준비는 산술급수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이해 없이 그들의 커지는 영향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런 이유에서 이번 <정글만리>는 자라나는 젊은이들에게 중국이라는 나라를 소개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혹자는 왜 역사를 다룬 소설을 연달아 집필하는지 묻는다. 그 질문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신 말씀을 인용해 대답한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수난의 역사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문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문인은 진실을 얘기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 역할을 하는 작가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 작가로서의 꿈이 있다면 우리 민족과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우리 역사를 보면 931회의 외침이 있었고, 그 중 80%가 중국이고 나머지가 일본이었다. 긴 역사의 순환에서 중국과는 애증이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의 장래를 위해 중국과 화합하고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 속에 중국인과 한국인의 사랑이야기를 담아 성장하는 20~30대 청년들이 중국에 대한 선입견을 제거하고 화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오늘의 중국을 알기 위해서는 지나간 중국의 역사부터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진시황 때의 이야기도 소설에 담았다. 더불어 한일, 중일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EU와 같은 경제 블록이 얼마나 허상인지 개인적인 소견도 담았다.

중국은 결국 세계 1등 국가가 될 것이다. IMF도 2016년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지금 약 1억 명이 개혁개방 이후에 생산직 근로자로 바뀌었다. 전 세계 소비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는 중국이 눌러준 저물가로 지난 20년간 불편하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은 내륙지역에서 몰려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공급하며 제조업국가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히고 있다. 15억이 만들어 내는 제조업 역량, 또 비례적으로 커지는 소비력을 당해낼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중국의 발전상을 보고 세계 강대국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천만 인구의 한국이 어떻게 중국과 공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리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동서양의 가치를 융합한 '한샘스타일'로 한샘을 글로벌 디자인기업으로 도약시킬 것

권영걸 (주)한샘 사장

사진 : 오경근 원장

서울 종로구 원서동에 위치한 한샘DBEW디자인센터. 권영걸 한샘 사장을 인터뷰하기 위해 그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창덕궁길을 북쪽으로 따라 걷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창덕궁 담장과 맞닿은 건물이 나오는데, 바로 이곳이 '동서양의 디자인을 넘어서(Design Beyond East&West)'라는 슬로건을 내건 한샘DBEW디자인센터다.

큰 한옥대문 뒤로 층층이 누각을 쌓아올린 것 같은 한옥 옆으로는 유리로 외벽을 장식한 커다란 서양식 건물이 색다른 매력을 뿜어낸다. 대문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서 나무계단을 오르는 양쪽으로는 창덕궁과 선교장, 석굴암과 석가탑, 에밀레종 등의 사진이 걸려있고, 한국과 중국의 고가구와 목기 등이 유럽의 유리 공예품과 멤피스 그룹의 가구와 어우러져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한옥부의 나무계단과 각층마다 축조된 누각은 한옥의 멋스러움을 더하고, 유리로 외벽을 장식한 양옥부는 현대적인 사무공간으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한샘DBEW디자인센터는 동서양의 가치를 융합한 디자인을 하겠다는 한샘의 의지가 반영된 곳으로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간다는 온고지신의 기업이념이 한눈에 느껴지는 곳이다. 국내 가구업계 최초로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달성한 한샘이 이를 넘어 매출 10조, 100조원 기업으로 성장할 전략을 '글로벌 디자인기업'으로 잡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권영걸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를 사장으로 영입한 것이다.

인터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랜 세월 대학에 몸담았기에 기업인으로의 변신이 어색하지는 않느냐고 물었다. 권 사장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삼목가구라는 회사를 창업해 5년간 운영한 적이 있고, 미국 UCLA 재학 시절에는 100년이 넘는 역사의 세계적인 가구회사, 허먼 밀러를 위해 일한 적도 있다"며, 기업이 생소하지만은 않다고 했다. "디자이너는 모종의 문제해결 공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인데, 그동안은 공공디자인에 문제해결의 공식을 적용해왔다면, 이제는 가구, 인테리어, 건축디자인에 그 방정식을 적용하는 것일 뿐, 문제해결 접근방법에는 차이가 없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매출 1조원을 넘어선 지금이 한샘의 재도약을 위해 종합 디자인정책을 수립하고,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용할 시점"이라며, "한샘만의 고유스타일을 정립해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디자인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매출 1조원은 달성했지만 한샘만의 고유한 스타일이 없다는 자기반성에서 나온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의 대부로 불리는 권 사장은 "서구 일변도의 디자인뿐인 가구시장에 동서양의 가치가 융합된 제3의 디자인을 개척하여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겠다. 우리 삶의 관습에 맞고 우리 몸이 기억하는 선험(先驗)을 한샘디자인의 기초로 삼아, 한국과 중국 등 동북아 지역의 특수가치(locality)를 범세계적 보편성 위에서 추구해 나가겠다. 이러한 연구 개발 노력들이 집적되어 한샘만의 고유한 '한샘스타일'로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구 공룡기업 이케아의 국내 상륙 앞에서도 끄떡없는 기업, 디자인을 핵심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국내 최초의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한샘의 미래를 지켜봐달라는 권영걸 사장을 만나 기업인으로서의 새 출발에 대한 다짐과 한샘의 디자인전략 수립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979년에 교수생활을 시작했으니 35년간 교직에 있었습니다. 중간에 서울시 부시장으로 나가 있던 2년을 제외하면 33년간 교단을 지킨 셈이죠. 한샘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조창걸 명예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류문명을 통찰하시는 혜안과, 그 분의 경영철학과 한샘의 기업이념에 대해 많은 것을 공감하게 됐습니다. 결국 고심 끝에 한샘이라는 기업에서 미래 인류의 삶을 이끌 디자인혁명을 이룰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고, 한샘을 한국을 대표하는 최초의 글로벌 디자인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취임하게 됐습니다.

오랜 교수직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기업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제안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기업행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총장으로 와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어느 대학에서는 제 이름을 넣은 대학명을 쓰겠다며 와달라고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총장직보다 더 명예로운 제안이었죠. 또 다른 기업에서도 사장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한샘도 그 중 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의 고비마다 늘 가장 어려운 미션을 택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여러 제안 중 가장 힘든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굳이 익숙한 아카데미아를 떠나, 스트레스가 클 법한 비즈니스의 세계를 택한 것도, 멋있게 표현할 때 도전정신이지 어쩌면 자기학대 같아 보이기도 해요. 대학이 온실과 같은 곳이라면 기업은 정글과 같은 곳인데, 온실도 아름답고 쾌적하지만 정글도 긴박한 생동감이 있어서 매력적이에요.

사실 저는 지극히 실용주의자입니다. 평소 '쓸모'라는 것을 중시하는데,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매출 1조원의 문지방을 넘어서 10조원을 향하고 있는 한샘과 같은 조직에 '쓸모'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년이 몇 년 남았음에도 자리를 옮긴 것은 그 자리에 젊고 유능한 소장 교수가 임용되어 학생들과 교섭의 밀도를 높이고, 활발히 연구와 교육에 매진한다면 그 또한 쓸모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모든 자리에 쓸모 있는 사람이 배치되는, '적재적소 사고'를 확장하면 국가적으로도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저를 지도교수로 택해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석 · 박사 제자들에게는 죄책감이 큽니다.

학계에 오랫동안 몸담으시면서 기여한 부분이 많으십니다. 기억에 남는 업적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자신의 업적을 말한다는 것은 참 민망한 일입니다만, 떠오르는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존에 없던 두 개의 용어, 두 개의 전공영역을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공간디자인'입니다. 1980년대 말, 공간디자인(space design)이라는 전공을 처음 만들었을 때, 외국의 디자인 학자들이 우주공간을 디자인하느냐고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당시 선진국에서조차 이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저는 <공간디자인16강>이라는 저서로 이 신생 영역을 이론적으로 정립했고, 오늘날은 실내디자인, 장식디자인, 환경디자인 등으로 불리던 전국대학의 전공 또는 학과명이 대다수 '공간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용어는 그 이후 외국으로도 확산되었어요.

그 뒤에 만들어낸 것이 '공공디자인' 영역입니다. 제가 공공디자인학회 설립

▲ 한샘 DBEW디자인센터 전경

을 주도하고, 국회에 공공디자인문화포럼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지구촌 어디에도 공공디자인(public design)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없었고, 아마존이나 반스앤노블에도 관련 서적이 한 권도 없었을 만큼 국제사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던 분야였습니다. 저는 <권영걸교수의 공공디자인 산책> <공공디자인행정론> 등의 저서를 통해 공공디자인을 학문적으로 정리했고, 디자인의 공개념을 제창하며 이 신생 분야를 정착시켜 나갔습니다. 몇 해 뒤 서울시 부시장 재임 당시,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행사를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디자인 석학들이 모였는데, 그때 강연에서 그들이 합창하듯 거론한 것이 바로 공공디자인이었습니다. 한국발 용어가 세계 석학들에게까지 전파되었고,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공공디자인은 보편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의 학자로서의 삶속에서 큰 보람으로 기억됩니다. 공공디자인이 시대의 화두가 되자, 공공부문이나 도시환경에 아무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디자인전공 학생들이 거리와 도시환경에 관심을 갖고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대를 떠나기 직전인 지난 2월, 저의 36번째 저서인 <나의 국가디자인전략>을 출간했어요. 이 책은 사회개혁과 국가발전 및 선진화에 디자인이 전략적 수단임을 알리고자 쓴 책으로, 지금은 민 · 관 · 산 · 학 여러 섹터에서 반향이 커서, 이 또한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샘은 이제 매출 1조원을 넘어선 가구 대기업인데, 무엇이 오늘의 성공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사장님 취임에 맞추어 '디자인 기업'으로의 성장전략도 세우셨을텐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샘에 합류를 결심할 때 제 나름대로 한샘의 기업이념과 체질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창업초기부터 인재에 대한 욕심이 유별났던 이 기업이 전 부문에 우수한 인재를 포진시켜 고비마다 바른 판단을 해온 것이 엘리트 기업 한샘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첫 번째 비결이었다고 봅니다. 장기불황 속에서 수많은 가구 및 인테리어 기업들이 무너졌는데, 그 불황이 깊어지던 2009년부터 한샘은 되레 급속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유능한 인재들의 올바른 판단력과 건강한 조직의 DNA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면에는 허세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기업의 성실성과 건강성,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과 냉철한 판단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위에 세계적인 CI 디자인 기업이 개발한 특유의 디자인으로 나름의 브랜드 가치를 구축해 온 것도 중요한 기업 자산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른바 '인적 자본'과 '조직 자본',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견실한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오늘의 성공을 있게 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리경영은 한샘의 소중한 기업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매출 1조원 기업을 넘어 10조원 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강한 기업자산에 승수효과를 낼 '디자인경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에는 한샘만큼 '글로벌 디자인 기업'으로 나아갈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이 없어요. 이제 한샘은 그 건강성에 창의성을 결합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작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동안의 한샘 제품에서는 디자인 정체성이 보이지 않고 철학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셨는데요. 어떻게 정체성과 철학을 정립해나갈 계획입니까.

한샘은 주방가구로 시작해 인테리어로 외연을 확장해 나간 기업인데, 이제는 건축자재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숨 가쁘게 성장해 온 과정을 보면,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만 매진했지 그 많은 제품 속에 한샘의 이데올로기를 녹여내는 작업은 미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한샘이 만든 숱한 제품들이 한눈에 한샘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한샘만의 고유한 언어를 갖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이른바 '한샘 스타일'인 것이지요. 사실 한샘은 내부적으로 철학적인 논의가 깊은 기업이지만, 그것을 외화(外化)하는 강력한 디자인 수단과 방법을 갖지 못했던 겁니다. 이제 내부에 이러한 업무를 관장할 '디자인혁신본부'라는 새 조직이 출범했기 때문에 향후 단계적으로 성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정체성을 반성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요. 1965년 미국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불과 반세기만에 우리 국민 6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라는 발명품은 우리의 전통적인 삶과는 무관하게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기에, 이 낯선 공간조직이 진정 우리에게 잘 맞고,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아파트는 가족들이 집에 들어오면 각자의 방으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대화를 단절시키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공간 형식이 과연 가족간 교류를 촉진하고, 가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가구의 디자인도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간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의 생활 관습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주거

형태는 어떠한 모습일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샘은 지속적으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매진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가구를 만든다기보다 행복을 디자인한다'는 이념으로 방향을 잡아나갈 생각입니다. 디자인에 아시아적 가치, 동양의 지혜, 한국의 정신, 한국인의 감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때 고객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가구기업 이케아의 국내 진출에 따른 국내 가구업계의 대응전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케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말 광명점을 시작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이케아에 대해 많은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 국내 가구산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한샘은 제품 스펙트럼이 넓고 중 · 고가시장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저가상품을 주력으로 하는 이케아와는 겹치는 세부시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케아는 싱글이 결혼할 때까지, 유학생이 귀국할 때까지, 신혼부부가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20~30대 젊은이가 조금 나이들 때까지 잠시 쓰고 버리거나 처분할 작정으로 사는 가구입니다. 때문에 한샘의 표적 시장과는 겹치는 부분이 크지 않아요. 물론 그 경계에 있는 부분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경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케아의 공과를 말하자면, 간소함, 간편함, 저렴함을 가치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한 점이나, 대중사회의 실용적인 주거문화와 행복을 증진시킨 점은 평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구촌 인류로 하여금 가구를 소모품으로 인식하게 만든 것은 지탄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생태학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가구를 간편하게 쓰고 부담 없이 버리게 만드는 것은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구는 간편함과 저렴함을 뛰어넘는, 보다 높은 가치를 지녀야하는 필수품이지요. 이 점을 인식한 이케아가 쓰던 가구 리모델링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들에게 돌아올 비난에 대비하는 마케팅 차원의 제스처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케아는 1980년대 일본 진출에 실패했다가 현지화마케팅으로 전열을 재정비해 다시 진출했고, 중국에도 진출했지만 초기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존재하는 문화적 배경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케아는 DIY제품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한국 남성들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하드워커이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쉬려고 하지 일하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DIY제품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넓은 야드나 차고가 있는 서구 주택과 달리 이케아가 주 타겟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같은 주거형태에서는 펼쳐놓고 작업하기가 불편합니다. 물론 이케아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중국과 일본에서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시장을 공략하려하기 때문에, 전략이 훨씬 더 정교해져 있어요. 반완제품과 완제품의 비율을 대폭 늘린다든가, 집까지 배송 서비스를 하겠다는 등 현지화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그 일례이지요.

이케아가 한국시장에서 국내 가구기업의 강점을 무효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듯이, 한샘 역시 이케아가 가진 장점을 무용하게 만드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 휴대폰, 자동차 등은 디자인에 지역의 특수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 무국적한 제품이지만, 가구는 로컬리티(locality) 기반의 디자인이 필수적인 부문이지요. 넓게는 동양성, 좁게는 한국성의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고, 보다 실용적인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집적을 이루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동안 공공디자인의 대부로 불리셨는데, 가구디자인 특히 한국적 가구라면 어떤 가치가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의 전통 주거 형식은 융통성과 적응성이 높은 공간입니다. 세계적인 공간 연구가나 디자인 이론가들이 경탄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역사적으로 생명력이 긴 건축공간의 사례들이 모두 융통성(flexibility)과 적응성(adaptability)이 높은 것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주거가 어떠했습니까. 방에 침구를 들이면 침실로 변하고,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고 밥상을 들이면 식당으로 변해요. 그 밥상을 물리고 차(茶)를 내오면 응접실이 되죠. 다시 저녁이 되어 이불을 펴면 침실이 되고, 화장실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기능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져요.

물론 지금 다시 그와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가치와 방식을 우리의 현대적 삶의 공간에 녹여내야 합니다. 많은 수의 국민이 침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갤럽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 35분에 불과하더군요. 나머지 시간은 그냥 그 넓은 침대가 실내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죠. 소파 역시 앉아있는 시간은 하루 2~3시간에 불과하며, 식탁은 체류시간이 더 짧습니다. 이렇게 잠시 머무는 방과 가구들을 모두 수평적으로 전개시키는 방식은 우리의 전통 주거 형식과 비교할 때 매우 비경제적입니다. 이런 것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관습을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화가 일어나고,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집은 어떤 모습의 공간일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아파트먼트의 공고한 벽을 걷어내고 이처럼 가변성과 적응성이 높은 공간으로 리디자인해야 합니다. 거실과 서재가 하나 되면 부모와 자식이 책을 매개로 이야기를 생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국민들의 일상의 공간이었던 안방과 사랑방의 현대적 변용을 연구하고, 실내공간과 가구 디자인에서 평좌(平坐)와 입식(立式)의 합리적 융합을 시도하되, 가족들 간의 시선교환과 대화촉진을 설계의 1차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 주거공간에서 많은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샘이 미국, 중국시장 등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기업'으로의 정체성이 확립된다면 '가구의 한류'를 선도해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모든 부문이 일제히 한류를 들먹이는데,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가구는 지역 기반의 문화적 인자들이 복합된 제품인데, 한류로 이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한류를 목표로 디자인한 것은 죄다 한류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체와 정서에 잘 맞고 현대적 생활양식에 잘 적용할 수 있을 때, 대내적으로 폭넓은 공감을 얻게 되고, 이후 동북아 주변국을 경유하여 세계로 나아가 한류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의 글로벌 명품이 탄생하는 경로와 유사합니다.

또 가구 한류가 가능하려면 시스템 한류의 틀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류는 가구만으로는 어렵고, 건축 및 인테리어에 통합되는 종합적인 공간 형식을 개발

▲ 권영걸 사장과 장만기 회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해야 합니다. 가령 지구촌 어느 도시에나 이자카야가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이자카야임을 알리는 소도구들의 연출이 있고, 현관에서 내부의 모든 세부에 이르기까지 인테리어 소재, 색채, 조명, 소도구, 서체, 그래픽 등에 모종의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가구가 핵심 요소가 되는 한국의 주거공간 형식을 개발하는 등 시스템 한류를 상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무런 생각 없이 서양가구와 서양식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누대로 내려온 생활습관과 맞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거실 소파에 여럿이 앉아 담소하다가도 누군가 바닥에 내려앉으면 하나 둘 소파에서 따라 내려와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활방식이 서구화되었다 해도 우리에게는 우리 몸이 기억하는 한국식 생활관습이 있습니다. 한샘은 한중일로 대변되는 동북아 사람들의 삶의 가치, 생활방식, 습관, 그리고 그들의 기질과 기호를 연구하여 진정으로 우리에게 적합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샘이 제안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이 시사하는 바에 따라, 한류를 넘어 시대의 세계 양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국가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묶어 <나의 국가디자인전략>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쓰셨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요.

4년 전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보면서 이들이 과연 중앙과 지방정부를 이끌어 가실 분으로, 나라와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거공약과 정책이 빈약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국가디자인전략이라는 틀을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4년이 지나 책이 출간된 지금, 지방선거의 후보들과 그들의 보좌관들이 이 책을 많이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디자인전공 학생들의 경우, 시각디자인 전공자는 CI, BI, 편집디자인 밖에 하지 않고, 산업디자인 전공자들은 백색가전, 모바일, 자동차 디자인 밖에 하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흔히 '목적 지향의 문제해결 활동'이라고 정의되는데, 대학의 디자인 교육은 너무 편협한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시각을 국가적 아젠다와 사회적 이슈로 돌리기 위해 쓴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아침 조간신문을 볼 때마다 온갖 사회현상들에 대해, 디자인을 매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대략 10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대학생들이 디자인교육을 받으면서 관습적이고 진부한 주제에 만 가두어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드는 88개의 의제를 설정하고 써 내려갔는데, 88개의 아젠다마다 평균적으로 7~8개의 실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 600개의 국가디자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부분의 책이 문제만 제기하지 해법을 주지 않는데, 이 책이 구체적인 구현방법과 실천 방식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사회가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족의 해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는데요. 이를 극복할 방법을 디자인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국민 대다수가 대가족 집안에서 살았지만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전되었고, 이제는 1인 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해지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5%가 1인 가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결혼기피 현상과 높은 이혼율은 우리 사회의 탈가족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요. 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한 가구도 잘 개발되어야겠지만, 과연 싱글족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도록 해서 결혼할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요.

가족끼리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는 무언가족이 늘고 있답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어느 설문조사를 봤더니 하루에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10분 미만인 사람이 26%나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거디자인, 특히 아파트먼트의 디자인을 보면, 시선의 접촉과 대화의 촉진을 위한 공간의 연구 개발은 아예 없고, 오직 특화에만 열중하고 있어요. 주부가 주택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는 가정 아래, 다수의 건설사들이 주부 위주의 특화된 평면과 인테리어로 분양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주부에 맞춘 특화된 공간에 반비례하여 가장을 위한 공간은 소외된 것이 현 주택시장의 흐름이에요. 가장을 위한 공간이 없는 집은 가장을 집이 아닌 곳에서 머물게 합니다. 이렇듯 현대인은 집을 잃은지 오래 되었어요. 일터에서 일이 끝나도 밖에서 서성거리는 그들에게 집은 그들을 품는 절대행복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집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족을 살리고 나도 살리는, 참된 '살림살이' 공간을 찾아야 해요. 가족을 해체하는 주거공간을 전면 개조하여 '살림'의 공간조직을 탄생시켜야 합니다.

단순한 질문이지만 '좋은 디자인'은 어떠한 디자인입니까? 좋은 디자인(Good Design)의 정의를 듣고 싶습니다.

좋은 디자인은 모름지기 자연의 도(道)를 따르고, 인간을 섬기는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제가 늘 이 두 가지 축을 말하는데, 만일 그 둘 중 더 중요한 것을 들라면 전자입니다. 전자가 후자를 가능케 하고, 후자의 성공을 담보하기 때문이지요. 중용에 만물병육이불상해(萬物竝育而不相害)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만물이 자라는 가운데 서로 돕고 해함이 없다'는 뜻이지요. 공생을 넘어 상생의 유토피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어느 신문사 기자가 느닷없이 전화해서 좋은 디자인은 어떤 것이냐

▲ 한샘이 개발한 동서양의 관습을 융합한 디자인, 키친바흐

고 저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최고의 디자인은 '동네 아무 식당에서나 볼 수 있는 녹색 이쑤시개'라고 얘기해서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쑤시개는 아밀로펙틴이라는 녹말 성분으로 만들어졌는데, 상온에서는 딱딱해져 이쑤시개로서의 1차적인 기능을 잘 수행하지만, 땅속에 묻거나 물에 들어가면 완전히 분해됩니다.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섭리에 가장 부합하는 디자인이지요. 생태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디자인의 대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문화적 맥락성이 있어야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1960년대에 갑자기 시작된 아파트라는 주거형식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혀 맥락적이지 않은 복식문화와 음식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처음에는 소외를 느끼게 하던 것이었는데, 오랜 반복학습과 훈련으로 자연스러워진 것들이죠.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생태성과 문화성 양면에서 추구되어야 합니다. 디자인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디자인을 맞춰야 해요. 우리 몸속에는 선조들의 선험(先驗)과 감성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누대를 이어온 누적적인 선험과 기억과 기질에 맞는 디자인으로 회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좋아할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디자인'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가족의 해체를 막을 수 있는 디자이너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장님의 가족사가 궁금해집니다.

평소 사회생활에서 가정사는 말을 잘 안 하는데 가족 이야기까지 하게 되네요. 조각가인 아내와 뉴욕에서 미술평론가 및 큐레이터 활동을 하는 딸, 그리고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각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모두 조형예술이라는 우산 아래에서 각기 자신이 세운 푯대를 향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고 있기에 삶이 즐거워요. 바로 오늘 지금이 중요하고, 행복이 곧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저의 디자인 목표도 늘 현재적이고 현실적이며, 디자인의 대상이 사물이든 공간이든 행복할 조건을 만드는 것에 집중합니다.

올해에 시작된 인간개발연구원 세미나의 좌장그룹 활동을 수락해주셨는데, 조찬세미나를 통한 CEO의 학습문화 조성, 전국 지자체, 기업, 공공기관 아카데미 교육으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해온 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뇌력(腦力)과 지력(知力)은 세계적인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 최고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식기반 사회의 방향을 이끌어 가는 중추 세력들의 지력과 창의력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시대의 고비마다 동 시대의 아젠다를 놓고 최고 전문가를 초빙해 사회 각층의 리더들과 이슈를 함께 토론하고 문제해결의 방안을 제시해온 인간개발연구원의 활동은 한국사회의 발전과 선진화에 너무나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아온 강연 아카이브는 그 자체로 한국 사회의 큰 지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이끌어가는 관료와 지성들을 강연자로 세우고, 한국을 대표하는 CEO들과 사회 중추세력들을 학습자로 참여시켜, 지식과 정보를 공유케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케 한 점도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원에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저 또한 올해 새롭게 시작한 세미나 좌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연구원 발전에 작은 밀알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권영걸 사장은

서울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거쳐 캘리포니아대학(UCLA) 대학원을 졸업(디자인학 석사)한 후, 고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공학박사)했다. 서울대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미술대학 학장 등을 역임했다. (사)한국색채학회 회장,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 회장, 국회공공디자인문화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공공디자인학회를 창설하고, '디자인 공개념'을 최초로 제창하는 등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의 전국적인 확산을 주도한 우리나라 공공디자인의 대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 부시장 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으로서 종합적인 디자인서울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나의 국가디자인전략>, <서울을 디자인한다>, <공공디자인행정론>, <공간디자인16강>, <한중일의 공간조영> <색채와 디자인 비즈니스> 등 36권의 저서를 펴냈고, 디자인 사회화의 공로로 국가로부터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하였다. 지난 3월 그동안 봉직해온 서울대 교수를 퇴직하고, ㈜한샘의 사장으로 취임했다.

정리 정용달팀장 dal2020@khdi.or.kr

인간개발연구원 '찾아가는 CEO교실 12'

'사람' 우선 행복경영 추구하는 마이다스아이티 방문

본원은 지난 3월 14일, '찾아가는 CEO교실' 12번째 행사로 사람을 우선하는 행복경영을 펼치고 있는 마이다스아이티를 방문해 이형우 대표의 '자연주의 인본경영'에 대한 철학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11일 'CEO지혜산책' 조찬강연에서 이형우 대표가 다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회원들을 초청해 들려주는 심화과정 형식으로 진행됐다.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참가자들은 "사람이 답이다"라는 이 대표의 강연과 간담회를 통해 마이다스아이티의 경영철학을 깊이 깨닫고 벤치마킹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우수한 기술력과 직원 복지로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마이다스아이티 방문기를 소개한다.

- 편집자 주

세계 1위 소프트웨어 업체라는 타이틀과 함께 독특한 경영철학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마이다스아이티. 건설 · 구조설계 소프트웨어 부문 세계 1위 업체로 도약하며 '국산 소프트웨어는 국내용'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키며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어서는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사람'을 경영의 최우선에 두는 자연주의 인본경영의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영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이형우 대표의 굳은 의지가 경영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경영의 최대 화두인 마이다스아이티

오전 11시, 회원들이 분당 마이다스아이티 사옥으로 도착하기 시작했다. 지하주차장에서 약속된 회사 9층 회의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중간층에서 직원 한 명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안녕하세요?"라고 밝게 인사를 건넸다. 회사를 찾은 손님에게 건네는 사무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반가움과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음이 미소에서 읽혀지면서 '정말 마이다스아이티는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3월 14일 찾아가는 CEO교실 12번째 시간으로 마이다스아이티를 방문했다. ▼ 이형우 대표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는 회원들

회원들이 모두 도착하고 곧바로 "사람이 답이다 – 마이다스아이티의 자연주의 인본경영 이야기"를 주제로 지난 강연에서 못 다한 이형우 대표의 이야기 보따리가 풀렸다. 이 대표는 경영의 목적은 '사람의 행복을 돕고 세상의 행복 총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인간의 본성과 자연의 이치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영이 바로 자연주의 인본경영임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설명을 이어갔다.

마이다스의 핵심가치는 행복, 보람, 나눔이다. 열정과 지혜로 성취의 삶을 실현함으로써 행복의 욕망을 채우고, 최고의 성과로 긍지와 보람을 구현함으로써 성공의 욕망을 채우고, 나눔의 실천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함으로써 박애의 욕망을 채우자는 것이다.

그래서 마이다스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자신에 대한 책임을 다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조직과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해 명예의 삶을 영위하고, 지구촌에 대한 책임을 다해 박애의 삶을 영위하는, '자신과 우리, 그리고 세상에 대한 올바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

마이다스는 이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人4 無원칙'을 세웠다. 無스펙, 無상평, 無징벌, 無정년이 바로 그것이다. 인사채용에 있어서도 서류전형에서 적극성, 긍정성, 성실성, 사회성 등을 판단한 뒤 논리력, 창의력, 합리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필기시험을 거쳐 팀장 및 임원 면접을 본 뒤 마지막으로 CEO 면접을 통해 최종 결정을 한다. 그러다 보니 채용을 마무리하기까지 3~4개월이 걸리는데도 2013년 공채 경쟁률이 505:1에 달했다. 이는 대기업 평균 입사경쟁률보다 5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임금 원칙에 있어서도 성과급 없이 기본급만 지급되는데, 대기업 상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상여 원칙 또한 반기 결산에 따른 팀별 이익을 배당하고, 개인 기본급에 비례해 분배함으로써 조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단, 직책수당, 자격수당, 학력수당, 특근수당을 배재하는 無수당 원칙을 고수한다.

리더는 구성원의 행복을 책임지는 사람, CEO는 노조위원장

이 대표는 '리더는 구성원의 행복을 책임지는 사람, CEO는 노조위원장'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마이다스의 구성원들은 스스로가 회사의 사장이라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그리고 회사는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하루 3식 호텔급 식사를 제공하고, 피트니스센터, 수면실, 무료미용실 등의 복지를 제공한다. 대학까지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를 기반으로 마이다스는 사업 체계를 정립함에 있어 자발과 자율, 치열과 치밀을 근간으로 구성원들의 열정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마이다스에는 예산이 없다. 모든 결재도 5분이면 이루어진다. 통제가 아닌 자율과 합법에 의한 재무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마이다스는 바르게 한다', '마이다스는 빠르게 한다', '마이다스는 제대로 한다'를 경영핵심으로 글로벌 리더 기업으로 성장해나가겠다는 말을 끝으로 강의를 마쳤다.

참가자들은 호텔 수준의 식사제공으로 잘 알려진 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마이다스의 한 차원 높은 복지수준을 경험한 뒤 이 대표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했던 점들을 해소한 뒤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 호텔 수준의 식사가 제공되는 마이다스아이티 사내식당 ▼ 이형우 대표 강연 후 회원들과 기념 촬영

회원소식

● **조서환 세라젬헬스앤뷰티 사장**은 전작 <모티베이터>에 이어 우리를 뜨겁게 일으켜 줄 <근성: 같은 운명 다른 태도>라는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살아 있는 마케팅의 전설'이자 긍정의 힘으로 역경을 헤쳐 온 모티베이터 조서환 대표가 전하는 '생각의 태도'를 담은 책이다. 저자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기어코 기회를 찾는 힘, 즉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근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저자의 흥미진진한 인생역정을 통해 일뿐 아니라 인생 자체를 풍요한 성취감으로 채워나가는 길을 제시한다.

● **박점식 천지세무법인 회장**은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정리한 에세이집 <어머니>를 출간했다. '부치지 못한 1000통의 감사편지'를 부제로 단 이 에세이집은 하의도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섬 소년이 50을 넘긴 나이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단상을 하나하나 모아서 엮었다. 현재 평점 10.0을 기록하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기업은행(행장 권선주)**은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2014 'IBK나누미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IBK기업은행은 IBK행복나눔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멘토링 사업에 지금까지 8300여명이 멘토와 멘티가 참여했다.

● **박이락 (주)성한트랜스텍 대표이사**가 지난 3월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대문세무서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 서대문세무서의 명예서장으로 임명되었다. 서대문세무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며 감사의 말과 함께 임명 이유를 밝혔다.

● **강대성 행복나래(주) 대표**는 지난 3월 10일 대전행복나눔푸드마켓 8호점(점장 김문규)에서 일일명예점장으로 나서 대전 서구지역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했다. 강 대표는 이날 방문 이용자들에게 기부물품을 전달하고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강 대표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는 기부와 나눔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 **씰리코리아컴퍼니(대표 윤종효)**가 매트리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제품 '씰리 하이브리드' 컬렉션을 론칭했다. 이를 계기로 씰리코리아는 올해부터 백화점 진출 등 유통망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 **CJ대한통운(부회장 이채욱)**이 지난 3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종합물류서비스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 CJ대한통운은 국가 경제의 대동맥인 물류산업의 대표 기업으로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해왔으며, 특히 택배업계 1위 기업으로서 국민 생활편의 증진과 전자상거래업, 중소 상공업 발전 등에 기여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주)오디바이크(대표 최영규)**는 한국토요타자동차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토요타 분당 전시장에 메리다바이크를 오는 5월 말까지 함께 전시하기로 했다. 회사측은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토요타자동차와의 콜라보레이션을 기획하게 됐다"며, "오는 5월 말까지 분당 전시장에서 메리다와 윌리어의 바이크 제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바이크와 자동차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새로운 유통망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지난 3월 25일 국내 최대 규모의 HRD대회인 '2014 한국HRD대상'에서 농협 최초로 HRD경영종합대상과 Best HRDer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올해 12회째를 맞는 2014 한국HRD대상은 한국HRD협회가 주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HRD 대회다.

● **동서식품(감사 김학수)**의 '맥심(Maxim)' 브랜드 광고가 한국광고주협회가 주최한 '제22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시상식에서 'TV부문-좋은 광고상'을 수상했다. 'TV부문-좋은 광고상'을 수상한 동서식품의 '커피라는 행복, 맥심' 캠페인은 마음의 정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삶 속에 커피 한 잔이 갖는 휴식과 여유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하고 세련된 영상미로 전달해 큰 공감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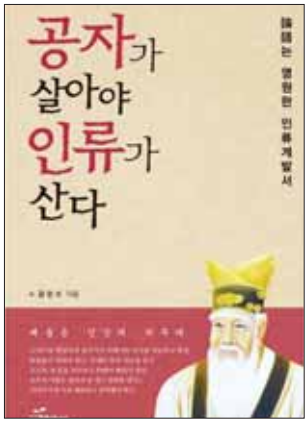
● **전순표 세스코 회장**이 지난 3월 28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국제로타리 RI3650지구 지구대회에서 '초아의 봉사상'을 수상했다. '초아의 봉사상'은 국제로타리가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세계 120만 명의 로타리 회원 중 매년 100여 명에게 시상되는 상으로 국제로타리의 이상과 봉사정신을 드높인 탁월한 봉사활동을 한 로타리안을 표창하는 상이다.

● **녹십자(사장 이병건)**는 지난 3월 28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영업부문의 경쟁력과 소통 강화를 위한 '2014 Professional Training'을 실시했다. 녹십자는 매년 영업부문의 'Professional Training'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직무능력 배양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 및 조직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 **삼익THK(주) 진영환 회장**이 국외소재 문화재찾기 환수기금으로 써달라며 우리문화재찾기운동본부에 후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진 회장은 "해외로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되찾고, 문화주권 확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금 기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진회장은 지난해 문화예술분야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대구문화재단으로부터 메세나상을 수상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탁해 대구지역 아너소사이어티 20호 회원으로 가입했다.

● **롯데호텔(대표이사 송용덕)**은 지난 3월 31일 사단법인 미래숲과 함께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에서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에 동참해 나무를 심는 '띵크 네이쳐(Think Nature)' 식수활동 캠페인을 펼쳤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시 관계자, 녹색봉사단 등 약 1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캠페인에서 롯데호텔은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에 나무를 심어 사막화 방지를 위해 2박 3일간 사막 트레킹 및 방품림 조성활동을 전개하고 돌아왔다.

● **(주)대명레전산업(사장 박흥석)**이 2014 고양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후원사로 나섰다. 회사측은 지난 3월 31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엠블호텔 킨텍스에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와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 최초로 열리는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대명은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을 지원하게 됐다.



● **공한수 Big Dream&Success 사장**이 신간 <공자가 살아야 인류가 산다>를 발간했다. 이 책은 인류의 스승인 공자의 사상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의무이자 존재의 증명이라 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인문서이다. 저자는 다양한 계층의 독자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공자의 말씀을 현 시대에 맞춰 적절하게 풀어내는 한편 생생한 예화와 희귀한 사례를 곁들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주)이데일리(대표이사 김형철)**가 신사옥 이전을 계기로 지면 쇄신과 온라인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이데일리는 지난 4월 1일부터 기존 24면이었던 지면을 28면으로 늘려 발행하고 있다. 지면 증강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진행돼 왔으나, 지난 3월 1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프라임타워로 이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겼다. 회사측은 늘어난 지면을 통해 중소 · 중견기업이나 투자은행 등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업계의 소식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 **최재형장학회(회장 김창송)**가 최재형선생 순국 94주기를 맞아 지난 4월 10일 국회 도서관 지하1층 회의실에서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4월 10일은 항일독립운동에 있어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는 4월 참변이 일어난 지 94주년이 되는 날이자 몸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이 됐던 최재형 선생께서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총살당한 날이기도 하다. 최재형장학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최재형 선생의 삶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선생의 정신을 본받아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자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100여 명의 후원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국내에 유학중인 고려인 3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이 한국-프랑스 국제미술교류전 '이곳에 살기 위하여(pour vivreici)'에서 전시활동을 펼친다. 이번 전시는 주한 프랑스 문화원이 후원하는 전시로 프랑스와 한국을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원로화가 장-마리 자끼, 국내 원로 도예가 조상권작가 등과 함께 한국과 프랑스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교류하는 자리를 마련되었다.

일 정 : 2014년 4월 11일(금) - 4월 27일(일) / 휴관없음
장 소 : 남서울대학교 아트센터 '갤러리 이앙'
문 의 : T. 02-3672-0201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채영수 (주)수안산업 대표이사의 장남 승우**군이 오는 5월 11일(일) 오전 11시 30분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연락처 : (주)수안산업 02-992-0120)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이름	회사명/직함	창립기념일
정이안 원장	정이안한의원	4월 1일
윤계웅 회장	서창전기통신(주)	4월 1일
오만식 이사장	창민의료재단	4월 6일
이충희 사장	(주)듀오	4월 10일
배승호 회장	(주)지케이이십일	4월 17일
박용팔 회장	전능IT(주)	4월 19일
김용복명예회장	영동농장	4월 20일
이시원 사장	주식회사 부천	5월 1일
박춘봉 회장	부원광학(주)	5월 1일
심갑보 부회장	삼익THK(주)	5월 10일
김석희 회장	삼이그룹(주)	5월 13일
김진희 대표	ESODO	5월 15일
추민수 대표이사	(주)흥진플러스	5월 15일
이용국 회장	신원휄트(주)	5월 30일
박이락 대표이사 사장	(주)성한트랜스텍	6월 1일
김서기 대표이사 사장	(주)태창파로스	6월 1일
전상백 대표이사 회장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6월 1일
곽창선 회장	우리BM	6월 7일
김영돈 부사장	대성MDI(주)	6월 25일

소모임소식

• **이종1그룹(회장 이윤수 / 총무 고지석)**은 1월 27일 한정식집 '예원'에서 신년 첫 모임을 가진데 이어 2월 2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정기모임을 열고 회원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 25일 정기모임은 부부동반으로 덕수궁 현대미술관을 방문해 전시를 관람하는 등 봄나들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이종3그룹 화목회(회장 황석희 / 총무 임종렬)**는 3월 25일 인간개발연구원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목회는 2년에 한 번씩 본원 사무국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모임에도 회원 10여 명이 바쁜 시간을 내어 자리를 함께 해 직원들을 격려해주셨습니다. 화목회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회장 정문호 / 총무 정지환)**은 2014년도에 에세이문집을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1월 13일 '손광성의 수필쓰기' 수업으로 신년 첫 모임을 가진데 이어 2월 10일과 3월 10일에도 도곡동 '옹고롱고'에서 정기모임을 갖고 회원들의 글을 토론하고 품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구원소식

• **2014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2013년 사업결과와 2014년 사업계획(안) 보고와 결의에 대한 2014 정기이사회가 2월 28일(금) 선릉역 동보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사회를 통해 논의된 사안들은 3월 6일(목)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제1813회 HDI경영자연구회와 겸하여 열린 2014 정기총회에서 결의되었습니다. 장만기 본원 회장은 총회를 통해 승인된 각종 사업들을 한 해 동안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리 정용달팀장 dal2020@khdi.or.kr

장만기 한국인간개발연구원 회장

한국경영자 인간교육의 선구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로부터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정신을 배우다

일본 PHP연구소가 발행하는 경영잡지 'PHP 비즈니스리뷰'가 '한국경영자 인간교육의 선구자'라는 제목으로 장만기 본원 회장의 활동을 상세하게 다뤘다. PHP 비즈니스리뷰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현 HDI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와 전남 장성군을 시작으로 성공을 거둔 지방자치단체 교육 등을 소개했다. PHP 비즈니스리뷰가 소개한 내용을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한다.

-편집자 주

한국 기업들이 '인재육성'을 그리 중요시 하지 않던 시절부터 마쓰시타 고노스케에게 영향을 받아 인간중심의 경영을 주창해온 이가 바로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장만기 회장이다. 1975년 연구원을 설립한 후 꾸준히 활동해온 결과 현재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재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장 회장과 연구원에 대해 서울에서의 인터뷰를 리포트한다.

Editor : 가와가미 쯔네오(PHP연구소 마쓰시다이념연구부 수석연구원)

1789회 조찬회, 40년 가까이 매주 거르지 않고 개최

지난 6월13일(목) 아침, 한국 서울의 롯데호텔에 갔다. 한국인간개발연구원(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주최의 조찬세미나인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인간개발연구원 활동이념에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철학이 관계돼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6시 50분에 호텔에 도착, 7시에 시작이라 들었기에 딱 맞게 도착했다고 생각했는데, 필자가 마지막인 것 같았다. 세미나장에 들어서자 10여 개의 원탁을 둘러싸고 100명이 넘는 기업경영자와 임원들이 아침식사를 하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벌써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필자의 자리는 가장 눈에 띄는 맨 앞줄의 한 가운데 원탁테이블이었다. 지각하지는 않았지만 도중에 입장하는 것 같아서 몹시 부끄러웠다. 자리에 앉으니 예상대로 일본어가 유창한 옆자리의 신사(나중에 성원교역의 김창송 회장이라고 들었다)로부터 '식사 많이 드세요'라는 인사를 받고 식사를 서둘렀다.

지난호의 '한국리포트'에서 소개한 기병태씨로부터 '한국의 조찬회는 7시 개시'라고 안내되어 있으면 7시에 시작이라는 말에 주의하고는 있었으나, 그것은 7시부터 조식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연구회'가 시작된다는 것이었다.

Main Guest는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정책 브레인으로 알려진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이다. 김 원장의 한 시간 강연 후에는 세미나 참가자와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있었고, 9시에 모든 세미나는 끝났다.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은 이와 같은 조찬의 '연구회'를 매주 목요일 롯데호텔

▲ 조찬세미나에 참석한 가와가미 쯔네오 수석 연구원

▲ PHP비즈니스리뷰에 소개된 장만기 회장

서울에서 개최하고 있다. 아침 일찍부터 100여 명의 기업경영자, 임원들이 모여 열심히 강연을 듣고 있는 광경에 놀랐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필자가 참가한 이 '연구회'가 1789회째 개최라는 사실이다. 1975년 첫 개최 후 40년 가까이나 된다. 매주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다.

지금은 한국의 경영자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그룹이 조찬회를 열고 있으나,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의 '연구회'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연구회'가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은 설립자이기도 한 장만기 회장의 노력에 의한 것이 크다. 장 회장이란 어떤 인물인가? 또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철학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경제발전이 과제인 박정희 대통령 정권 하에서

정부 · 기업의 해외 홍보에 진력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은 '인간개발'이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인재육성과 교육을 중시하고, 'Better People Better World' 즉,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미션을 내걸고 있다. '기업은 사람이다. 사람 만들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빈번히 사용하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리 귀하지 않은 미션일지 모른다.

그러나 장만기 회장이 연구원을 설립한 1975년 당시의 한국에서는 사람의 중요성이 거의 인식되어있지 않았다. 지금이야 삼성과 같은 인재육성을 강조하는 한국기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된 데에는 연구원을 이끌어온 장 회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 회장은 1937년 생으로 금년 76세이다. 온화한 신사의 용모와는 달리 30대 후반에 연구원을 설립하기 전부터 호전적으로 활동해온 인물이었다.

그는 본래 학자이다. 명문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1968년 명지대학교 교수가 됐다. 이러한 경력만 보면 엘리트로서 순풍만범(順風滿帆)의 청년시대를 걸어온 사람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은 상당히 고생한 사람이다.

지방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한 때 중학교 진학마저 포기하려 했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주위의 따뜻한 협력과 지원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인간 능력의 가능성과 타인을 돌보는 도덕성을 중시하는 장 회장의 자세는 이러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명지대학에 부임하고 얼마 뒤, 학장과 대통령실 수석홍보관으로부터 '한국의 정부와 기업의 활동을 해외 미디어에 소개하고 싶다. 협력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70년대 고도경제성장기에 접어들던 시대, 한국경제의 국제신용도가 미약했기에 외국자본의 도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미국을 위시한 서방 선진국에 한국의 매력을 어필하는데 힘을 쏟기 시작했다.

장 회장은 대학교수이면서도 상아탑에 얽매인 인물은 아니었다. 곧바로 미국의 최대 신문사인 뉴욕타임즈와 협의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당시는 해외여행이 금지되던 시절이라 해외 주재원의 방한을 부탁하고, 정부의 각 부문을 소개하면서 '이 가난한 나라를 도와 달라. 힘을 빌려주지 않겠는가'라고 상담했다고 한다.

그 결과 뉴욕타임즈 일요판에 한국특집이 실리게 되었다고 장 회장은 회상한다.

"8면에 걸친 특집 중 절반이 정부 각 부문의 인터뷰 기사, 나머지 절반이 한국 기업의 광고였습니다. 이 특집이 소개되면서 한국에 대해 공헌했다는 생

각과 더불어 이제부터라도 공헌하겠다는 사명감이 치솟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정부는 해외홍보에 쓸 자금이 충분치 않아 장 회장 스스로 한국의 대기업을 돌면서 광고비를 지원받았다. 그 후 같은 방법으로 '일본경제신문'에도 한국특집이 실리게 되었다. 결국 한국정부는 그 수완을 보고 장 회장에게 '정부가 스폰할테니 홍보에 관한 사업을 해보지 않겠는가?'라고 실업가로의 전환을 권했다.

그래서 장 회장은 KMI(Korea Marketing International)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회사 경영자가 된다는 것이 그때는 흔한 일이 아니라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국정부와 기업의 홍보업무는 더욱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의 타임즈 등의 미디어,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요미우리, 산케이신문 등 일본의 전국지까지 협력해주기로 했고, 그 결과 저는 상당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장 회장은 실업가로서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성공에 지나지 않았다.

정변으로 홍보회사가 경영파탄, 인간개발 기관 설립을 결의

1972년 10월의 소위 '10월 유신'은 KMI 경영에 큰 타격을 주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가 강화되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대폭 악화되어 해외 홍보사업이 없어졌다.

이러한 외적요인뿐만 아니라 KMI 내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장만기 회장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출국 허가가 나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출장을 떠났는데, 이것이 실수였다. 부하직원을 믿고 중요한 일감을 맡기고 갔는데, 직원이 마음대로 자금을 써버린 것이다.

"경영자로서 경험이 미숙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부터 다시 시작했고, 과거 마쓰시타 고노스케가 '곤란은 발전의 기회'라고 말한 것처럼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의 설립에 전념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장 회장은 대학원 시절 책을 통해 모티베이션과 인사관리의 중요성을 배웠고, 대학교수가 된 후에도 성공철학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폴 J. 마이어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흥미를 갖고 인간의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을 하고 싶은 생각을 마음 한 구석에 갖고 있었다. 또 일본의 경제발전에 경영자의 활약이 공헌하고 있는데도 주목하고 있었다.

"당시의 한국은 가난했고 어떻게 해야 경제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에는 이것을 해결할만한 힘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일본은 마쓰시타 고노스케나 혼다 소이치로 같은 경영자가 혁신적인 일을 함으로써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었죠. 역시 민간기업의 경영자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영자를 교육하는 기관을 설립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1975년, 이렇게 해서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금성(현 LG전자)과 OB(현 두산)그룹, 유한양행이라는 일류기업의 경영자가 장 회장의 생각에 찬동하고 발기인으로 함께했다.

제1회 연구회를 1975년 2월 5일에 개최했다. 당초에는 일본어와 영어 등의 문헌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해 참가자들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운영했다. 그 후 서서히 형식을 바꿔 목요일 아침 7시에 정 · 재 · 학계 등의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후 매주 정국이 불안정할 때도 쉬지 않고 연구회를 열고 있다.

강사는 당초 학자가 많았으나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등 훗날 대통령이 된 유력 정치인과 정주영, 김우중 등 재계 거물급 인사, 그리고 때로는 문화예술인들까지 강사로 초빙하게 되었다.

매주 유명강사를 초청하고, 호텔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데는 그에 따른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원은 특정 단체나 기업에서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비정치, 비종교, 비영리'라는 '3비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순수하게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되므로 재정적으로 힘들 때도 있으나 중립적 입장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연구회를 지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연구회를 아침 일찍 열고 있는 이유는 참가자인 경영자도 초청되는 강연자도 극도로 바쁜 사람들이라 아침밖에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장 회장은 말한다.

"한국인의 경우, 그리고 대개 경영자들은 아침이 빠릅니다. 아침 일찍 연구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열기에 넘치고 강연자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 필자가 참석했을 때도 질의응답 시간이 모자르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연자에 대한 질문과 의견이 던져지고 있었다.

마쓰시다에게 배운 인간중시 경영사상에 큰 반응

장 회장은 인터뷰 중 너덜너덜해진 수첩을 하나 꺼내들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것은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사원들의 마음가짐 수첩'입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메모하면서 공부하고 있죠. <실천경영철학>도 좋습니다. 나는 진정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팬이에요. 그와 관련된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Better People Better World'라는 연구원의 미션도,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철학에 배경을 두고 있다. 특히 마쓰시타 전기는 전기제품도 만들고 있으나, 그 전에 우선 사람을 만들고 있다는 마쓰시타의 말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마쓰시타의 경영사상을 좀 더 배우려고 연구원 회원들을 데리고 마쓰시다전기(현 파나소닉) 본사와 PHP연구소를 방문한 적도 있다.

장 회장은 연구원이 설립된 지 1년 후인 1976년, 경제지 '서울경제신문'에 '인간경영'이라는 타이틀의 연재를 시작했다.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영향으로 기업에 있어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 쓴 칼럼이 엄청난 반응을 일으켜 몇 회로 끝낼 예정이던 칼럼을 1년 이상 계속 썼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이지만 한국의 기업사회에서는 그리 중요시되지 않던 인간중시의 사고가 침투하기 시작했고, 연구원의 존재감도 높아졌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장 회장의 생각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 바로 장성군의 개혁이다.

'연구회' 참가자가 군수에 취임, 지자체 개혁으로 곽광 받음

2006년 5월 24일자 '일본경제신문' 조간에 의하면 장성군의 개혁을 그린 <주식회사 장성군>을 읽은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이 국내 공무원 전원에게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라고 쓴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다. '사람'을 중시한 장성군의 개혁은 이와 같이 일본의 매스컴에서도 언급할 만큼 한국에서 주목을 모았다.

대한민국 전남에 위치한 장성군은 예전에는 한국인에게도 그리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시골의 군이다. 군은 일본의 시정촌에 해당한다. 한국에서는 1961년 군사쿠데타에 의해 지방자치가 중단되었으나 1991년 지방의회 선거로 부활했고, 1995년에는 지자체 수장을 뽑는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후 각 지자체에 자율성과 독자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장성군수 선거에서 당선된 김흥식 군수는 교원에서 공무원으로, 회사원으로, 그리고 부사장까지 올랐던 관민 양쪽의 세계를 경험한 인물로 1987년부터 목요 조찬세미나인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김 군수는 연구회처럼 매주 우수한 강사를 초청해 교육을 통해 장성군의 공무원들과 군민들의 의식을 바꾸려고 생각했다. 그러면 정치와 행정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관습에 물들어있던 공무원들은 변화를 기피했고, 군에는 유명강사를 매주 초청할만한 자금도 없었다. 예산을 짜고 싶어도 다리와 도로 건설 및 정비를 우선하는 것이 지방의 형편이었다. 군의회도 찬성하지 않았다. 교육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선 성과가 나올지 말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이었다. 군민의 지지 역시 얻지 못하는 사면초가 상태였다.

보통의 군수였다면 여기서 포기했을텐데, 김 군수는 고민 끝에 장만기 회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인맥이 많은 장 회장은 김 군수의 열정에 감동해 강사 섭외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문제는 의뢰하고 싶은 강사들은 대부분 서울에 있었고,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초청하면서 사례도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평소 높은 강사료를 받던 저명한 강사들이 매주 장성군에 내려가 강연을 했다. 그 이면에는 장 회장의 공이 컸다. 강연을 부탁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강의를 부탁합니다'라고 설득하는데 힘을 썼던 것이다. 그 덕분으로 각계의 일류 강의를 무료로 듣는 '장성아카데미'가 시작되었고, 많은 군민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참가하게 되었다.

한편, 김 군수는 행정조직을 '주식회사 장성군'이라고 부르며 마치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철학처럼 자치행정을 경영에 끌어넣는 것을 제시했다. 당초 공무원들은 저항했지만 '장성아카데미'의 교육효과로 점차 행정의 효율화와 혁신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다. 장성군은 창조적 정책 제안을 계속 발표하면서 기업유치에 적극적이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 장성군 자체에도 교육에 거는 성과가 인정되어 정부기관을 위시하여 각종 단체에서 사업비와 상금을 받게 되었다.

장 회장에 의하면, 장성군의 성공 사례로 인해 연구원은 지자체 관련 업무에 탄력을 받게 되었고,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다. 또 자치단체 외에도 활동역역을 넓혀 육군, 공군, 경찰서, 대학, 학교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젊은이에게 포괄적 인간학을, 인간중심의 'TPT' 제창

한국에는, 특히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사람들의 의식도 큰 변화를 겪었다. 이는 한편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다른 면에서는 사회 각 분야에 많은 격차를 만들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사회통합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기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한국사회는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이념간 가치관의 대립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서로 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겠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려면 역시 인간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만기 회장은 TPT(Total People Technology)라는 개념을 제창하고, 특히 젊은이를 대상으로 인간이해를 깊게 하는 리더육성 교육에 힘쏟고 있다. IT와 BT 같이 이제까지는 정보와 생명과학 등을 경제의 중심으로 여겼으나 앞으로는 PT(People Technology)의 시대, 인간중심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 회장에 의하면 TPT란 '모든 인간을 살리는 지혜의 인간학'이다. 인간을 지성, 감성, 영성의 포괄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장 회장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는 사무엘 스마일즈의 저서 <자조론>의 한국어판 번역자이기도 하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장 회장이 이상으로 삼는 인간상이란 다만 비즈니스와 행정의 세계에서만 쓸모있는 사람은 아니다. Better People Better World라는 미션이 말하듯 좋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인격자여야만 된다는 것이다. TPT를 이념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그에 따른 철학을 가진 리더들을 육성하는 것이 그의 꿈이다. 70대 후반이 되고도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장 회장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가 주는 교훈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국가부도 위기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 페소(아르헨티나의 화폐)는 26%가 평가절하되었고, 외환보유액은 295억 달러로 과거 3년간 44%나 감소되었다고 한다.

막대한 외채 중 우선 65억 달러의 외채상환협상이 시작되었는데, 아마도 상환기간 연장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500억 달러 어치의 정부국채를 사들였는데, 이 돈이 다 어디 갔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IMF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국가부도 위험지수는 무려 2805.3으로 터키(276.5)나 인도(316.4)보다도 훨씬 더 높다.

아르헨티나는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나라인데, 국토면적이 277만 7천㎢로 남북한을 합친 면적의 12배가 넘고, 각종 곡물과 축산물을 생산하는 인구 4천만의 남미 제2의 대국이다.

1945년까지 아르헨티나는 세계 8위의 경제대국이었다. 이런 나라가 잦은 정변과 쿠데타, 그리고 잘못된 국가경제 관리로 1988년 세계 84위로 밀려났다가 이제는 100위권 이하로 추락해버렸다. 1천억 달러가 넘는 외채에다 엄청난 물가고로 시달리고 있는데, 일부 부유층의 자산 해외도피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할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정치 불안은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교훈이다. 잦은 쿠데타와 정변, 그리고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국가의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가 없어 오늘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둘째, 공업화 정책 대신 농산물과 축산물 생산 · 수출 위주의 농업우선 정책이 이 나라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한 주요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셋째, 정 · 관계의 부정부패 만연과 도덕불감증이 나라를 망친다는 교훈이다.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물가고로 국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만연되어 사회기강과 법질서 확립이 어려워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경제는 자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정치는 자꾸 뒷걸음쳐서 여야 극한대립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여야 모두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뼈저린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이다.

● 김동기 석좌교수

1934년 생으로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경영학 석사 후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71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고려대 경영대학장, 경영대학원장, 국제교류위원회 위원장, 국제대학원 초대원장, 경영학과 명예교수 등을 역임했다. 한국마케팅학회, 한국경영학회, 한국물류학회, 한국상품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등의 회장으로 다양한 학계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고대경제인회 고문 및 편집위원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현대마케팅론> <국제화시대의 경영전략> <GE혁명 당신의 운명을 지배하라> <국제마케팅론> 등 다수의 저서가 있으며, 국민훈장 석류장,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2013년 3월부터 집필해주셨던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의 칼럼에 이어 이번호부터 김동기 석좌교수의 칼럼이 시작됩니다. 좋은 글로 지면을 빛내주신 김병일 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이기는 피부과학,
형태를 초월한 생명과학
한국콜마의 다음은 뭘까?

노화를 이중으로 완화하며 주름진 눈가를 개선하는 일.
10년의 피부나이까지 초월하는 기술, 액체를 캡슐에 담는 제제기술-
이 모두가 당신을 위해 화장품과 의약품을 만든 한국콜마의 발자취입니다.
생각의 한계에 도전하며 수 십 년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왔듯,
한국콜마는 오늘도 다음 세상의 피부과학과 생명과학을 연구합니다.

당신을 향한 변화, 한국콜마

• **액상경질캡슐 :** 국내 유일 제제기술인 리드캡 기술로 만들어지는 경질캡슐로 액상 성분이 부드럽게 체내에 더 빠르게 흡수되도록 돕는 캡슐형 의약품입니다.

kolmar
한국콜마

화장품 · 의약품 · 건강기능식품 ODM 토탈서비스 컴퍼니 한국콜마는 바이오-나노 기술을 연구하는 기초 • 색조 연구소, 의약품의 유전 테크놀러지를 실현하는 생명과학 연구소를 비롯, 발효한방연구소, 석오생명과학연구소, 에스테틱 R&D 센터 등 세계적인 R&D 연구소에서 당신을 향한 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수상
(사)한국언론인협회 선정_인재육성부문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여성가족부 선정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동화 속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람들

큰 회사보다 남 다른 회사 이야기입니다.
동화같은 기업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낮은데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더 큰 미래의 꿈을 실현합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우리 모습하고 경쟁했습니다.
힘을 모으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학습하고 도전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색깔을 가졌습니다.
과정은 남다르지만 우리 현재의 모습은
동화세상입니다.

educo 동화세상 에듀코
www.educo.co.kr

교육전문기업에서 그룹화 비전을 실현합니다.

코칭 홈스쿨 코칭 사이버스쿨 에듀코 연수원 E&F 영어전문학원 코칭 학습지
에듀코 파워잉글리쉬 · USA · CHINA · 기업교육사업 · (주)고려진생 · 무역사업 · 유학사업

educo 동화세상 에듀코
www.educo.co.kr